



‘서울에서 찾아보는
민주화 역사의 현장’

이동엽 선생님

“사람은 뇌에 기억을 하지만, 역사는 장소에 기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복잡한 청계천 횡단보도 앞에서 전태일 열사의 분신 자리를 알리는 동판을 보았을 때, 사람 부대끼는 종로거리에서 조선시대에 어둑어둑한 자리였었음을 알리는 나즈막한 돌을 볼 때, 우리는 가끔 장소를 통해 역사를 보기도 한다.

‘서울에서 찾아보는 민주화 역사의 현장’이란 주황색 표지의 얇은 책은 초등학생용 역사 교재다.

귀여운 그림과 함께 예쁘게 편집된 이 책은 19군데의 서울시내 민주화 역사의 현장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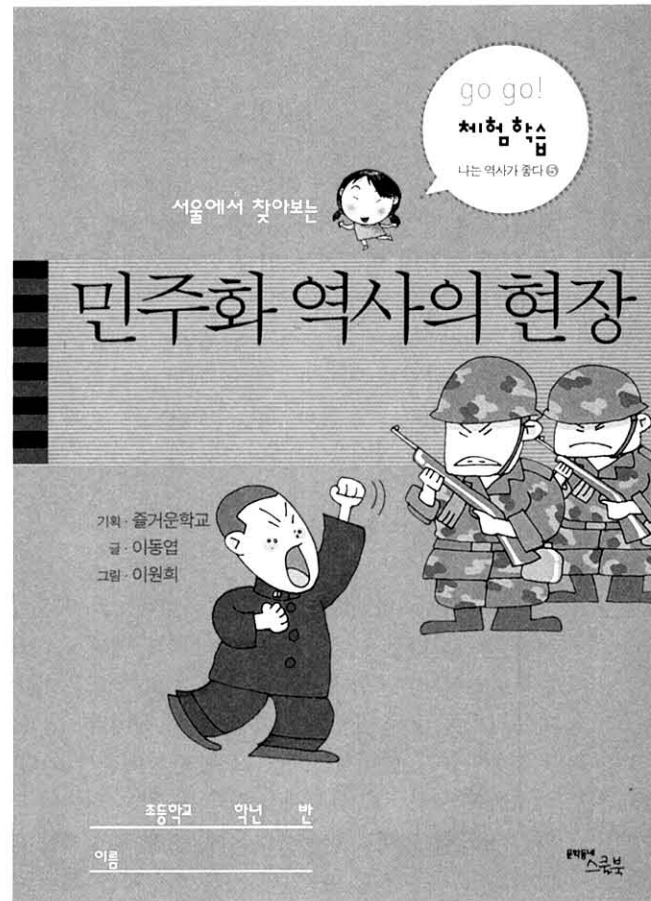
김구 선생님 묘소가 있는 효창공원, 몽양 여운형 묘소 등 대한민국 건국 시대부터 국립 4·19묘지, 전태일이 분신한 평화시장, 5·18묘역, 참여연대나 환경연합 같은 시민운동단체까지 아울러 설명하는 이 책의 필자는 경기초등학교 2학년 국화반 이동엽 선생님이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된다는 딸아이 손을 꼭 잡고 들어온 32살의 젊은 선생님은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는 것이 어색하다며 머쓱해 했다.

학부형이 되기엔 젊어 보이기에 일찍 결혼하셨는가 하고 실실한 말을 건네자 22살에 결혼했다며, ‘좋은 건 빨리 한다’고 웃어넘기고 이런 저런 말들을 들려주기 시작하였다.

그는 교대를 졸업하고는 한국교육개발원에 다녔다.



민주화 역사의 현장 표지그림

왜 명동성당을 민주화 운동의 성지라고 할까요?



6·10 항쟁 기간에 명동성당에서는 군사 독재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 열렸습니다. 진압에 나선 경찰도 성당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진압하지 못했습니다. 또, 6·10 항쟁에는 종교인들의 참여가 활발했습니다. 그들은 경찰의 무력 진압을 반대하고 평화를 외쳤습니다.

명동성당 가는 길



명동성당에 가 봅시다.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무엇을 요구하는 시위인가요?

노태우와 6·29 선언

6·10 민중 항쟁이 계속되자 노태우 대통령은 6·29 선언을 통해 민주적인 헌법을 만드는 등 민주화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이로써 6월 민중 항쟁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땅의 민주 진영 대통령 후보였던 김영삼과 김대중은 각각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어요. 아담의 분열을 틈타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후보는 어부지리로 대통령에 오르게 되었고 제6공화국이 출범했어요. 군사 독재는 다시 5년 간 연장되었지요.



시청 앞 광장은 시골 시냇가에

시청 앞 광장은 우리 역사의 산 증인이예요. 그 옛날 대한제국의 최후를 지켜보았으며, 수십만 시민들이 6·10 항쟁으로 민주화 열기를 뽐이 낸 곳이기도 합니다. 또, 이 곳은 2002년 월드컵을 맞아 붉은 악마의 광장으로 다시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붉은 악마는 월드컵이 열리는 동안 시청 앞 광장에 모여 응원 열기를 가득 내뿜었습니다. '대~한민국!' '오~ 필승 코리아!'의 합성이 물결친 시청 앞 광장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오랫동안 기억되었지요?



'민주화 역사의 현장' 본문 중에서

그곳에 있으면서 6학년 사회교과서(1996년 6차 개발)를 만들게 되었는데, 6학년 2학기 현대사회 단원 부분에 우리 민족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제대로 실려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민주화운동을 제대로 신기 위해 여러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고, 이렇게 모아진 자료로 정리된 내용을 교과서에 담으려 했다. 그 결과 미흡하지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민주화 과정을 담아내었고,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내용과 함께 '시민단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초등 교과서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1996년도에 6차, 2001년도에 7차 사회교과서를 집필하면서 모은 자료들로, 아이들에게 올바르고 풍부하게 우리 근현대사를 가르치기 위한 책을 내기로 마음먹고 준비해 내놓은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처음에는 근현대사를 내용으로 만들어볼까 하다 이리저리한 사정으로 서울에서 찾을 수 있는 민주화 역사의 현장체험 교재로 만들었다는데, 그저 해설서나 다른 방식의 교재로 엮을 수 있던 것을 현장학습 교재로 구성한 이유를 궁금해 했더니 이어서 설명해 주었다.

"사람은 뇌에 기억을 하지만, 역사는 장소에 기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이해하면 역사를 이해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장소에 묻혀 있는 기억을 재현하면서 공부하는 체험학습이 보다 나은 역사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대학원에서 지리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다는 그는 역사와 지리를 하나로 생각했다. 이렇게 역사를 장소에 펼쳐놓고, 지리적인 것으로 공부한다면 보다 아이들 교육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즉 체험학습이란, 장소를 중심으로 기억을 되살려내 역사 속 사건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좋은 공부법이다. 그러기에 체험학습 교재로 꾸민 이 책은 첫 페이지에 역사현장의 위치를 표시한 서울지도로 시작하여, 사건에 대한 짧은 설명과 함께 현장을 찾아가는 길, 관련 사료, 사건이나 장소에 대한 질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을 교재 삼아 아이들에게 직접 교육하였는지, 아이들 반응이 어떠하였는지 묻자 담임을 맡고 있는 반뿐 아니라 특별활동 '지역탐구반'을 만들어서 아이들

과 보통 한 학기에 세 네 번 정도 현장학습을 갈 수 있다고 했다. 아이들도 체험학습이 익숙하지는 않지만, 많은 아이들이 적극적이라고 했다. 이 책으로 김구 기념관, 이화장, 시청 앞 등을 답사하였는데, 당시의 흔적이나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곳에서는 직접 준비한 관련 사료를 들고 가서 현장에서 학습하기도 했다.

위낙에 현대사를 다룬 어린이용 도서가 없는 형편이라 다른 선생님들도 이 책을 반기는 편인 것 같으며, 아직까진 지적을 많이 듣지 못했지만 책 내고 나서 3군데 정도의 오류를 발견했다며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읽어서 많은 지적도 받았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사실 큰 책방에 가서 아무리 뒤져봐도 '민주주의'나 '민주화'에 대한 아이들용 도서 찾기로 몹시도 힘든 일이니, 그 중에서도 괜찮은 책 고른다는 게 어떨지는 짐작할만하다.

아쉽고도 걱정스러운 건 민주주의는 지식이나 행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문화요, 습관이기에 민주적 인간과 사회를 위한 길고 차분한 교육이 갈급한 현실이다. 그것이 이 책 한권에 이렇게도 눈길이 가고 반가운 이유다.

요새 민주주의에 대한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민주주의 교육을 학습과정에 넣겠다는 발표가 있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 가슴을 쓸어내린다.

올해로 꼭 찬 교사생활 4년 동안 집필한 책은 상당했다. 이 책이 자신 혼자 본격적으로 집필한 첫 책이고, 이 외에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사회교과서를 현장학습교재로 만든 20쪽 짜리 30권 시리즈도 곧 발간할 예정이며, 근현대사 책도 준비 중이다. 또 난지도와 관련한 생활사 책도 썼으며, 대학교재 '환경학 개론' 까지 잇따라 책을 냈다.

준비 중이라는 근현대사 책에는 개화기 전후부터 현대사까지 다뤄진다는데 동학, 호남평야의 일제 착취 등을 기차를 타고 학습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기차 자체가 우리 근대화의 첫출발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 자주와 민주화, 통일 이야기까지 담고 있다.

사실 전부터 아이들을 위한 근현대사 책을 쓰고 싶

었으나 출판사 요구 등 여러 상황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현대사를 다뤘던 것이라며, 지금 이 책 초고까지 완성한 상태라 한다.

이런 다작은 결국 정신없이 살았다는 그의 삶을 보여주는 바다. 몹시 바빴겠다고 문자 방학 뿐 아니라 학기 중에도 자료 수집 등 책 준비에 정신없이 살았다고 했다.

그의 분주함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환경교육학과 간사로 5년째이며, 환경과공해연구회라는 시민단체의 교육국장도 맡고 있고, 또 생태사회과교육연구회라고 칭한 이틀끼리 8년째 모임도 하고 있다.

이쯤 되니 "제 관심 분야는 사회교육과 환경교육입니다..."로 이번 인터뷰의 첫마디를 댄 그가 아이들을 위한 사회교육과 환경교육으로 살아온 바가 또렷이 보였다.

문득 어찌 연구원으로 지내던 삶을 던지고 평교사가 되었는지 궁금했다.

"실제적으로 교육이 이뤄지는 곳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지금 교사생활이 저한테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훨씬 좋아요."

옆게 웃으며 대답하는 그는 올 3월부터는 경기초등학교를 떠나 경남 거창의 셋별초등학교로 옮긴다고 했다. 온 가족이 함께 거창으로 내려가야 할 이동을 그가 자원한 이유를 문자, 그저 시골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더라고 짧게 대답했다. 뜰씩이며 짱알대는 아이들 속에서 편하면서도 힘차게 가르치는 모습이 희미하게 그려졌다.

"한 사회가 다양성을 풍부하게 해 가는 길이 민주화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다양하게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그것이 인정되는 것, 남과 내가 다른 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이죠."

누구나 자신의 모양대로 다양하게 살아감이 자연스러운 사회. 그것이 바로 그가 이렇게도 열심히 살고 있는 이유였다.